"우리 불교대학과 함께해요"

새 학기 맞는 부산·경남 불교대학들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

부산 경남에 포진한 불교대학들이 새해를 맞아 정진의 열정을 불태우는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교대학들은 신도자격증과 포교사 고시 응시 자격 부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자들을 위한 양질의 시스템과 다양한 강좌들을 마련하고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자년 한 해 주목받는 불교대학 강좌들을 소개한다.

양산 통도사 불교대학(학장 정우, 055-382-7182)은 3월 6일 입학식을 하고 개강한다. 통도사 불교대학이 다른 불교대학과 다른 점은 다름 아닌 우수한 강사진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사를 배출한 통도사 승가대학의 영향으로 다른 불교대학과 차별화된 모습을 자랑한다. 15년 동안 매해 300여명 졸업생을 배출한 통도사 불교대학은 초급자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기초 교리반에서부터 경전반 및 전문반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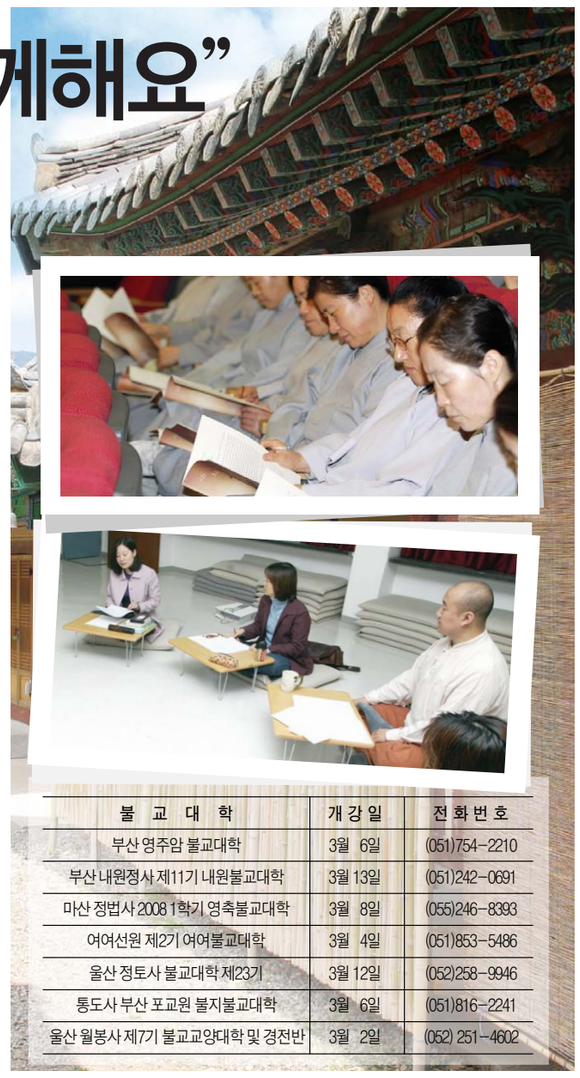
부산 범어사 금정불교대학(학장 대성, 051-866-7277)은 1월 19일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에서 그동안 진행한 학사 프로그램과 포교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20년 전 개교한 범어사 금정불교대학은 불교대학을 마친 후에도 동문회 활동 및 범어사 참선반을 통해 신행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불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08년 새 학기에는 전문교육기간, <육조단경> <금강경> <법화경> <불교유식학개론> <원각경>등 교과목을 개설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마감은 2월 22일이며 입학식은 3월 2일 오후 2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강선태, 051-711-0108)은 기초교리반, 불교학과 등 경전 공부 뿐 아니라 전통의식반, 한문반, 수화교실 등 문화 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수화교실 수강생에게는 수화통역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추천함과 동시에 청각 장애인 포교 및 봉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전국적으로 많은 포교사를 배출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접수 마감은 3월 8일이다.

부산불교교육원 여래사 불교대학(학장 원범, 051-466-4080)은 경전공부와 함께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수업 전 매일 108배로 절 수행을 하며 수업을 마치기 전 참선 실수 시간을 가진다. 여래사 불교대학은 올해 제1기 불교학과, 제38기 불교입문자 과정, 종우 스님의 명법문 명강의 경전과정, 제3기 기초 참선 과정, 제5기 다도반 마음다루기와 다도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 접수마감은 3월 10일이다.

부산 고심정사 불교대학(학장 원택, 051-464-8450)은 부처님의 생애, 성철 스님의 사상, 사찰 예절, <반야심경> <금강경> 강의를 원택 스님, 각성 스님과 각 분야 박사급 교수들이 강의한다.

하성미 기자



불 교 대 학	개강일	전화번호
부산 영주암 불교대학	3월 6일	(051)754-2210
부산 내원정사 제11기 내원불교대학	3월 13일	(051)242-0691
마산 정법사 2008 1학기 영축불교대학	3월 8일	(055)246-8393
여여선원 제2기 여여불교대학	3월 4일	(051)853-5486
울산 정토사 불교대학 제23기	3월 12일	(052)258-9946
통도사 부산 포교원 불지불교대학	3월 6일	(051)816-2241
울산 월봉사 제7기 불교교양대학 및 경전반	3월 2일	(052) 251-4602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정토사 덕진 스님

발원과 정진의 생활화 위해 노력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 · 사진) 가던 날은 무자년 정초기도 입재일이라 이른 아침부터 정토사 법당은 많은 불자들로 가득했다. 울산에서 어린이 지도자 양성과 어린이 법회를 27년간 지속하는 등 어린이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덕진 스님은 한문불교의식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각종 포교로 워낙 바쁘신지라 잠깐 인터뷰를 하는데도 미안함이 앞섰다. 하지만 정초기도 입재 중인데도 편안한 웃음으로 시간을 내어 주셨다.

부처님의 가르침 쉽게 한글로 계단 없는 절, 접근 편리하게

덕진 스님은 "시민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고 신행생활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종 불공 및 기도 법회를 우리말로 진행해, 불자들이 의식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찰의 주련도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토사의 역할을 밝혔다.

스님은 사찰의 건축도 권위보다는 접근성이 편리하게 했다. 일반 사찰의 경우 웅장함을 강조하기 위해 대웅전을 높이지만, 정토사는 계단을 없애고 마당에서 바로 대웅전 문과 일치하게 하여 몸이 불편한 불자들도 쉽게 부처님 전으로 가게 배려했다.

스님은 문서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교천자문>을 출판했다. 한, 중, 영, 일어 4개 국어로 번역 수록된 이 책은 경전 8종 가운데 나오는 한자를 뽑아 엮어 해외불자들도 부처님의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스님은 오랫동안 사찰 기도법회와 천도재, 각종 기도의식과 청소년, 어린이, 교도소, 병원 등 포교 현장에서 직접 쓴 발원문 80여 편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발원문 108선집>을 엮었다. 발원과 서원을 통해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바르게 지키고, 수행을 곧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책을 엮은 취지를 밝혔다.

울산에서 최초로 조계종 신도전문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정토사 불교대학은 오늘날 정토사의 토대를 마련하게 해주었다. 벌써 23기를 모집하고 있는 불교대학은 1년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지역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동문들로 구성된 '밝은 세상' 정토사 자원봉사팀은 매일 신정동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실천을 이곳에서 회향하고 있다. "행정 처리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서 요즈음은 복지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다"며 스님은 잠시 여유로운 웃음을 띠었다.

스님과 어린이 포교는 불가분의 관계다. 창건 후 어린이 법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법회를 열고 있으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을 엮임한 스님은 어린이 포교에 매진하는 이유를 묻자 "어린이 불심은 평생을 간다. 공양, 인사하는 법등 어릴 때 가르쳐야 실천이 빠르다"며 동심불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스님은 인터뷰를 마치자 바로 차를 몰고 복지관을 향했다. 스님의 몸이 왜 그리 가냘픈지 오늘따라 그 이유를 알게 하는 날이다.

오세룡 부산지사장

부처님의 제자로 성장 발원

제1기 홍법사 영·유아 수기법회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2월 13일 '제1기 홍법사 영 · 유아 수기법회'를 봉행했다. 수기법회는 부처님과 제자의 인연을 맺기 위해 봉행하는 법회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정수리를 만지며 현생에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준 것에서 유래를 찾는다.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유아수기를 하고 있다.

홍법사는 이번 수기법회를 위해 삼보사찰의 청수를 길어 7일 기도 후 관정수기용으로 사용하는 정성을 보였다.

주지 심산 스님은 "수기법회를 봉행한 것은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당당한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며 "지혜광명의 자비심을 내며 시대의 큰 기둥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번 수기법회에는 8개월 된 쌍둥이 백지현, 지혜양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 윤나영(30)씨는 "쌍둥이들이 함께 이렇게 수기를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행사 진행 중 우리의 소원을 적어 넣어둔 타임캡슐을 5년 뒤에 열어보고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수기법회에서는 3세 이하의 유아 25명과 2명의 태아를 포함하여 총 27명이 수기를 받았다.

하성미 기자

원효센터 '대승기신론' 강좌 열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은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의 화엄종, 천태종, 선(禪), 정토종, 진언종 등 여러 종파에 영향을 끼치고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대승불교 해설서다. 특히 원효 스님이 주석한 <대승기신론 해동소(海東疏)>는 현수 스님의 <기신론의기(起信論義記)>, 혜원 스님의 <대승의장(大乘義章)>과 함께 3대소(大疏)라 일컫는 명저로 중국에서도 기신론 연구의 기본문헌으로 삼을 정도로 뛰어나다.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해동소>만을 심층 연구 강의하는 부산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효센터(주지 공파)가 대승기신론 강의 수강생을 특별 모집한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기신(起信)은 말 그대로 믿음, 신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심을 시작으로 발심하고 지속적인 정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공파 스님은 <대승기신론>은 믿음은 변하지 않는 발심의 근원이라 강조하며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개강은 2월 27일이며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된다. (051)611-3808

하성미 기자

2008학년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모집

대한불교 총본산 조계사에서는 2008학년도 불교대학 · 불교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동국대학교 · 중앙승가대학 등에서 강의하시는 스님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여 수행과 실천을 하는 불자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교대학

※특전 조계종 종단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졸업생에 한함)
매학기 성적우수 및 신행봉사 관련 포상

교육과정(2년 4학기제)

1학년 1학기 : 아함경, 인도불교사, 불교윤리, 불교문화 2학기 : 금강경, 중국선종사와 참선기초, 대승불교
2학년 1학기 : 대승기신론, 한국불교사, 불교사회복지 2학기 : 화엄경, 포교방법론, 육조단경과 선실수

모집분야
주간반 : 월 · 화 오전 10:30~ 12:30 / 모집정원 60명
야간반 : 월 · 화 오후 7:00 ~ 9:00 / 모집정원 60명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00 ~ 6:00 / 모집정원 60명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 신도, 조계종 사찰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이수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접수기간 : 2008년 1월 2일(수) ~ 2008년 2월 말
면 접 : 추후 공지 입학식 : 3월 2일(일) 개강일 : 3월 3일(월)
*입학원서 다운로드 : 조계사홈페이지(www.jogyesa.org)

불교대학원

교육과정(2년 4학기제)

1학기 : 선사상연구, 비교종교학 2학기 : 중관사상, 현대사상과 불교
3학기 : 유식학, 한국불교사상 4학기 : 법화사상, 불교원전강독

모집분야
주간반 : 월요일 오후 2:00 ~ 5:00 / 모집정원 40명
야간반 : 월요일 오후 7:00 ~ 10:00 / 모집정원 40명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00 ~ 6:00 / 모집정원 40명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 신도
조계종 1년제 이상 불교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일한 학력 이수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불교대학 졸업증 사본1부
접수기간 : 2008년 1월 2일(수) ~ 2008년 2월 말
면 접 : 추후 공지 입학식 : 3월 2일(일) 개강일 : 3월 3일(월)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교무국 전화 02)720-1390 팩스 02) 720-1391